



국제표준부터 인공지능까지... 한·중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강화

- 제20차 한·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최 -

지식재산처(처장 김용선)는 8. 25.(화) 10시 정부대전청사(대전시 서구)에서 중국 지식재산국(CNIPA) 정보화 전문가들과 함께 「제20차 한·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한·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2년 한·중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협의체로, 지난 20여 년간 정보화 정책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왔다.

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최근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,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의 국제 지식재산정보 표준화와 관련해 ST.92* 대응 시스템 개발 진행 현황과 지식재산 정보 교환 표준 관련 동향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.

* ST.92 : '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정보 꾸러미 형식 권고'를 규정한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국제 표준

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식재산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양국의 인공지능 활용 및 혁신 사례를 중점 소개한다.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반 특허·디자인 검색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, 중국 지식재산국은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시스템 도입 현황과 함께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가 구축·운영 중인 특허 검색 및 심사 시스템 시연도 선보일 예정이다. 이를 통해 특허 검색 및 심사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양국 전문가 간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 도입 경험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.

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“이번 회의는 한·중 양국이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의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”라며, “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혁신과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제20차 한·중 정보화 전문가 회의 개요 및 주요 일정

담당부서	지식재산정보국 지식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규동 (042-481-5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균 (042-481-4385)
		담당자	주무관	윤종환 (042-481-5129)

□ 회의 개요

- **(목적)** 양 기관 간 정보화 현황·계획, AI 기술 활용 현황 공유 및 국제표준 과제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
 - '02년 한-중 지식재산기관장 회담 이후 양 기관은 정보화 전문가 회의를 번갈아 개최('25년 19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)
 - * '0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'08년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
- **(일시·장소)** '26. 8. 25.(화), 정부대전청사 1동 중회의실(202호)
- **(진행방식)** 사전 합의된 안건으로 대면 회의 진행
- **(참석자)**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^(수석대표), 정보화 국제협력 담당자, 의제별 사업 담당자, 정보원 실무자 등(이상 11명)
 - * (중국 지식재산국 대표단) Mr. Wang Chengjun IT자원관리과장 외 실무 담당자 3명

□ 주요 일정

일 시		주요 의제	비고
8.25. (화)	10:00-17:50	▪ 정보 교환 - 최근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계획 현황 공유 ▪ 국제 표준 - WIPO ST.92 대응 시스템 개발 진행 현황 - IP 데이터 교환 현황 공유 ▪ AI 활용 - AI 기반 특허 시스템 현황 공유 - AI 기반 디자인 검색 현황, AI 적용 행정업무 등 공유 ▪ 검색·심사 시스템 시연	